

# ‘간절한 기다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8)

##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 소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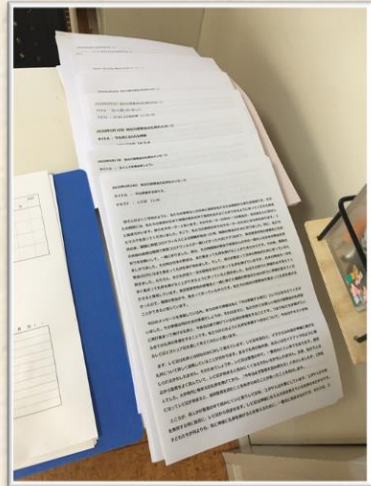
### >>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지난 4월 일본의 긴급사태선언으로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加古川恵教会)는 4월 12일 부활절부터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번 기도편지에서 전한 것처럼, 4월 한달은 성도들에게 설교원고를 보내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인터넷 생중계가 가능한 일본의 다른 교회를 소개하였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한 성도와의 만남을 통해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예배에 대한 갈급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영적인 갈급함을 보고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현재 교회 사정으로 인터넷이 되지 않아, 생중계를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설교 영상을 녹화한 뒤, 유튜브를 통해 성도들에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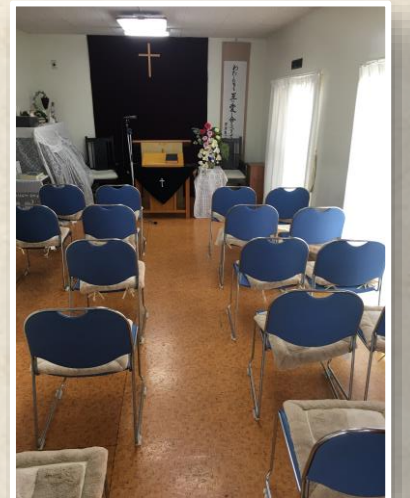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섬기기 시작하자마자 예배를 드리지 못해 안타까움이 많았는데, 비록 영상이지만,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과정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 >> 기다리고 기다렸던 예배의 재개

그리고 드디어, 긴 기다림을 뒤로하고 5월 31일, 성령강림주일부터 예배를 재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정 간격을 유지하고, 찬송가는 한 절만 부르며 예배시간을 단축하게 되었지만, 다시 모여 예배를 드리는 감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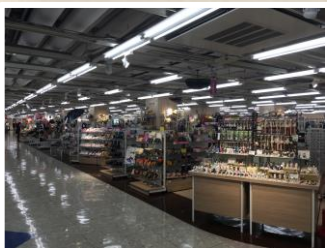
## ◆일본의 소식 (코로나 상황)

### >> 긴급사태선언이 해제되었습니다.

지난 5월 22일은 효고현에 그리고 25일에는 일본 전역에 내려졌었던 긴급사태선언이 해제가 되었습니다. 아직 코로나19의 위험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에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긴급사태선언은 해제로 그동안 영업을 중단했던 시설들이 영업을 재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들도 분산적으로 등교를 시작했습니다.

긴사태급선언이 해제되긴 했지만, 마트와 백화점에서는 여전히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시하고 있으며, 음식점들은 도시락 판매 등을 하며 주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동안 볼 수 없었던 마스크와 손소독제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가격은 예전에 비해 많이 올랐으며, 어린이용, 유아용 마스크는 아직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하루 속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부터 안정되기를 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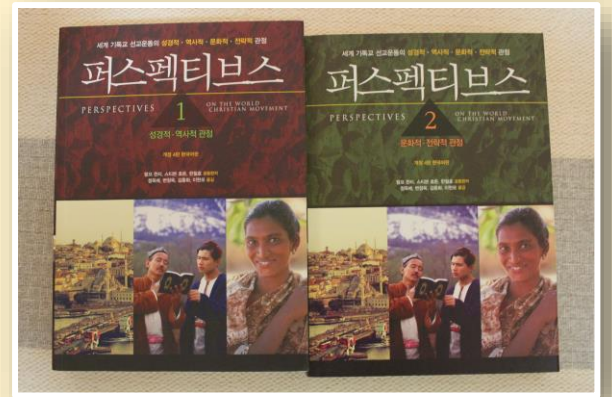


## 가족 소식

일본 선교사로 파송된 저희 가족에게는 하나의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일본에서 일본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주님의 제자로 훈련시키고 나아가 선교사로서 다른 나라에 파송하는 것입니다.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기도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가 필요하다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황명아 선교사가 퍼스펙티브스훈련(Perspectives)이 온라인으로도 개설이 되는 것을 알고 저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깊이 있는 선교학을 배울 수 있는 훈련이기에 즉시 신청을 했고, 이곳 일본에서 온라인을 통해 훈련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 중보 기도 요청



#### ◆나츠미 자매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동경성서학원 3학년에 재학중인 우이 나츠미(宇居夏海)자매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급성 맹장염이 찾아와 병원에 입원했지만, 수술을 하지 못하고 약물치료를 하고 병원에서 퇴원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든 수술에 방호복을 갖추어야 하는 상황이라 수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들었습니다. 수술이 아닌 약물치료 중이기에 아직 통증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일본 깊이 알아가기

#### 도박의 영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긴급선언이 해제되고 가장 먼저 영업을 재개한 곳은 다름아닌 파친코장 이었습니다. 그리고 파친코 영업재개를 기다렸다는 듯, 주말에는 많은 사람들이 파친코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사실 일본에서는 파친코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이 종종 일어나고는 했습니다. 무더운 여름에 부모들이 아기를 자동차에 내버려둔채 파친코에 열중하여 열사병과 질식으로 아기가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복음이 없어서, 삶에 대한 희망이 없기에, 한탕을 바라고, 요행을 바라는 이들은 이른 아침부터 파친코로 몰려갑니다. 몰려드는 사람들 때문에 파친코의 규모는 점점 커져만 갑니다.

하루 속히 일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파친코가 아닌 진정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 기도해주세요!

1.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오히려 일본에 복음이 전해지는 기회가 되기를
2. 카코가와 메구미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은혜와 능력 주시기를
3. 5월 31일부터 재개되는 예배 가운데 은혜가 넘치도록
4. 카코가와 시가 주님의 도시로 변화되도록
5. 일본인들이 파친코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기쁨을 누리도록
6. 6월의 사역과 가족의 건강을 위해

## ☎ 후원안내

- 연락처 : 080-4188-2604  
070-4226-3122
- 이메일 :  
directed@naver.com
- 후원 계좌 : 국민은행  
529-49085-948421  
예금주: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본부